

한국판 지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 수 립[†]

열린사이버대학교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지혜 연구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판 지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비 척도 문항들을 수집하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56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567명(M=27.52세)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새로운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자 566명(M=27.84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전체 참가자 대상(N=1,133)으로 지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지혜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위요인들은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이었다. 그리고 본 지혜 척도는 만족할만한 신뢰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척도가 갖는 의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혜, 한국, 지혜 척도, 성인 발달, 척도 개발

[†] 교신저자 : 이수립,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교수, (133-777) 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한진아파트 119-403. E-mail: sulimhm@hanmail.net

지혜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개념이 복잡하고 과학적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자아 발달과 같은 영적인 탐구, 추상적 사고, 인지 심리학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20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Birren & Svensson, 2005). Erikson(1963)은 지혜를 인간발달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자아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자아 통합의 과업을 이루면서 획득되는 성인발달의 최고의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혜는 자아통합과 성숙, 탁월한 판단과 대인관계 능력, 인생에 대한 통찰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 인간발달의 절정으로 여겨진다(Ardelt, 2000; Clayton, 1982). 많은 발달학자들이 그동안 나이듦(aging)의 과정을 인간 기능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았다면, 지혜는 나이듦(aging) 과정에 새로운 발달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전생애 발달학자들이 노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써 지혜를 연구하였고, 지혜는 지능과 달리 노년기에도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lson & Srivastava, 2002; Smith & Baltes, 1990). 따라서 지혜는 성인발달 분야에서 나이듦에 따른 긍정적 변화의 새로운 목표이자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이수림, 조성호, 2007; 주용국, 2011; Flood, 2002),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혜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예, Ardel, 2011; Glück & Bluck, 2011; Taylor, Bates, & Webster, 2011). 지혜는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위기의 극복, 이타행동 등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김민희, 민경환, 2010; Ardel, 1997, 2000, 2005; Hartman, 2000; Jennings,

2004),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지혜 개념은 이론가들마다 다르게 개념화되었다. 지혜 개념은 큰 영역에서 실용적 지혜(practical)와 초월적 지혜(transcendent)로 구분되었다(Wink & Helson, 1997). 실용적 지혜는 흔히 인생에서의 실제적 지식과 판단력과 관련되며 대표적인 학자는 Baltes이다. Baltes는 지혜를 “인생 영역의 기본적인 인생 도식들(예, 인생의 계획, 관리, 검토)에서의 전문적 지식 체계”(Baltes & Smith, 1990)로써 정의하였고, 지혜는 인지적 특성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수행을 다루는 전문적 체계”라고 보았다(Baltes & Staudinger, 2000). 따라서 그들은 인생문제들에 대처하는 답변을 가지고 지혜를 평정하는 평정도구를 개발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들의 지혜 평정 기준은 삶에 대한 실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맥락적 사고, 가치 상대주의, 불확실성의 인식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예, Kunzmann & Baltes, 2003; Staudinger & Baltes, 1996; Staudinger, Lopez, & Baltes, 1997; Staudinger, Maciel, Smith, & Baltes, 1998).

초월적 지혜는 자아를 초월하는 것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영성(spirituality)이나 해탈과 관련된다. Wink와 Helson(1997)은 초월적 지혜를 “추상, 통찰, 지식의 복합성과 한계의 인식, 사고와 정서의 통합, 철학적 영적 깊이를 요구되는 진술들”을 기준으로 평정하였다. Levenson과 Jennings, Aldwin, Shiraishi(2005)는 자아초월이 초월적 지혜에 핵심이며, 이는 자아중심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의하였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아초월 척도(The Adult Self-transcendent Inventory: ASTI)를 개발하였다.

한편, 지혜 개념에 성격 요인까지 포함시킨 다차원적인 지혜 개념이 정의되었다. Ardeli (2003)는 Clayton과 Birren(1980)의 인지, 반성, 정서의 세 가지 차원을 기초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인지적 차원은 지식과 지적인 경험과 탐구력 등을 의미하며, 반성적 차원은 내적 반추와 여러 관점에서의 조망, 정서적 차원은 긍정적 정서, 공감과 호의도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녀는 위의 세 차원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3차원 지혜 척도(Three Dimensional Wisdom Scale: 3DWS)를 개발하였다. Webster(2003)도 지혜를 성격특성과 관련지어 정의하였는데, 지혜의 주요요인들을 경험, 정서, 회상, 개방성, 유머로 정의하고 자기평가 지혜 척도(Self-Assessed Wisdom Scale: SAWS)를 개발하였다.

동양의 지혜 개념은 서양의 지혜 개념보다 종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Takahashi & Bordia, 2000; Le, 2004). Takahashi(2000)는 서양과 동양의 지혜 개념에 대한 차이를 주장하면서, 서양에서는 인지능력, 추론 등 지혜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동양의 지혜 개념은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 및 다양한 인간 의식 측면의 자각 및 통합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Le(2004)도 서양의 지혜는 실용적 지혜를 강조하고, 동양의 지혜는 초월적 지혜를 강조한다고 하였으며, Yang(2000)의 대만인들의 지혜 개념 연구에서 나타난 지혜의 요인들은 ‘유능성과 지식’, ‘자비와 열정’, ‘개방성과 심오함’, ‘겸손과 절제’로써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격 및 정서 등의 특성들을 포괄하였다.

현재 국내의 지혜 연구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한국 노인의 지혜 척도’(성기월, 이신영, 박종한, 2010)와 ‘한국인의 지혜 척도’

(김민희, 2008)가 개발되었다. ‘한국 노인의 지혜 척도’는 지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로부터 문항을 구성하지 않고 노인대상 심층면접을 토대로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공감적 정서’, ‘자기성찰’, ‘인생극복 경험’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경험적으로 지혜 개념을 조사하여 척도를 개발한 의의가 있으나, 노인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대상으로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지혜는 나이에 따라 발달한다는 주장들이 있고 노년기와 특히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지혜는 연령과 관련이 없었다(Bluck & Glück, 2004; Smith & Baltes, 1990). 즉, 한 종단연구(Helson & Srivastava, 200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노인과 청년, 중년층간의 비교에서 지혜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Baltes, Staudinger, Maercker, & Smith, 1995; Smith, Staudinger, & Baltes, 1994;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Bluck과 Glück(2004)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중년층의 사람들이 노인보다 지혜로운 수행을 더 나타내었다. 지혜의 발달에는 연령보다는 인생의 위기 극복경험이나 진로, 성격 요인 등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편적이다(Ardelt, 2000; Baltes & Staudinger, 2000; Jennings, 2004; Staudinger, Maciel, Smith, & Baltes, 1998). 또한 청소년기부터 중년기의 지혜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생애를 포괄하는 지혜 척도가 필요하다(예, Pasupathi, Staudinger, & Baltes, 2001; Levenson et al., 2005).

‘한국인의 지혜 척도’(2008)는 ‘인지적, 정신적-종교적, 도덕적-윤리적, 관계적-사회적 요소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역량’이라는

개념화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윤리적 요소’에 해당되는 요인은 척도 하위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지혜의 ‘도덕적-윤리적 요소’의 개념이 ‘인지적 요소’의 개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성을 도덕과 관련된 사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 본다. 따라서 도덕성 발달의 핵심 변인은 인지적 틀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판단이라는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것이다(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즉, 지혜의 인지적 요소는 삶을 보는 안목과 높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나타내므로, 이에는 도덕적 판단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혜 개념에서 도덕적-윤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인지적 요인을 정의하고 동양에서 중시되는 자아통합적인 요인을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이전 연구와 다르게 지혜를 개념화하고 그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최근의 지혜 연구에서는 ‘지혜’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척도로 지혜를 모두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지혜를 측정하는 서로 다른 척도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Ardelt, 2011; Jennings, 2004; Le, 2008). 따라서 다른 개념화에 근거한 척도 개발은 국내 지혜 연구에 활성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외국의 지혜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지혜 공통적인 요인들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혜 개념의 근거로 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개념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혜를 인지적, 통합적, 관계적 요인의 종합적 탁월성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혜 개념은 지혜가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성하였다. 최근 지혜가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데 많은 이론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지혜의 개념이 다차원적이라고 지지된 바 있다(Ardelt, 2003; Montgomery, Barber, & McKee, 2002; Webster, 2003; Yang, 2000). 그리고 동양에서의 지혜 개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동양 문화의 지혜 개념은 여러 요인들의 종합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인지적 요인은 대부분의 지혜 개념화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개념으로, 인지적 측면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지혜의 인지적 측면이라 함은 삶에서의 지식과 관련되며, ‘삶에서의 전문적 지식’(Baltes & Smith, 1990), ‘균형 이론에 근거한 암묵적 지식’(Sternberg, 1998), ‘반성적 사고와 판단’(Kitchener & Brenner, 1990), ‘문제발견능력’(Arlin, 1990), ‘인지적요인’(Ardelt, 2003)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문헌상의 지혜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글자 지(智)는 지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글자 혜(慧)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혜성을 의미하며 두 번째 부분은 마음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지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혜성이 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지혜를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이해 또는 통찰로써 해석할 수 있다(No, 1993). 한편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덕목을 육바라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최고의 완성 단계가 지혜, 다른 말로 반야(般若)로 표현된다(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1995). 법륜스님(1996)에 의하면, ‘반야’는 불교에서 지혜를 일컫는 말로써, 관조반야란 사물을 정확히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실상,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보는 지혜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혜의 인지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혜의 인지적 요인은 삶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목,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적 요인은 동양 문화의 지혜에 대한 개념에서 중시되는 부분으로, 내면과 삶의 통합을 의미한다. Clayton과 Birren(1980)에 의하면, 동양적 지혜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지, 정서, 직관, 관계 영역에 비슷한 무게를 두며, 경험을 통한 성찰적 이해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경험을 통한 성찰적 이해라 함은 삶의 경험을 반추하여 자아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경험을 통한 통찰의 핵심기제는 “새로운 경험의 통합”으로써, 이는 도전적 사건이 개인에게 위기감과 강한 정서를 일으키고, 중국에는 자기 자각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삶과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한다(Levitt 등, 2003). Webster(2003)도 같은 맥락에서 ‘경험’과 ‘회상’을 지혜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Levitt(1999)은 13명 승려를 대상으로 지혜 발달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지혜가 발달하면서 타인에게 더 자비롭고 덜 시기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보다 통합됨을 밝혔다. Le(2004)는 지혜 발달의 동양적 관점은 궁극적으로 자각이 발달하는 것으로, 자아지식의 축적, 초연, 통합과 자아초월을 포함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즉, 지혜란 내면의 정서를 잘 다스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는

통합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이수림과 양미진(2009)의 지혜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 내담자들은 지혜를 조망의 확대와 평정심이라고 지각하여 인지적 요인과 내면의 통합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관계적 요인은 지혜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Ardel(2003)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호의를 지혜의 요인으로 보았다. Webster(2003)는 유머를 지혜 요인으로 보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하였다. Levenson 등(2005)도 지혜를 자아중심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의하여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중시하였다. Takahashi(2000)는 동양의 지혜 개념에서 관계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설명할 때 실상반야와 방편반야를 설명한다. ‘실상반야’란 보는 자와 우주만유가 하나로 통일되어 보는 자가 우주의 일부가 되어 버릴 때를 의미하며, ‘방편반야’란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교화방편이다(법륜스님, 1996). 즉, 불교에서의 지혜는 중생이 자기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과 전체를 통찰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통합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권으로써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시된다(조금호 2007; 차재호, 정지원, 1993).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상담성으로 보고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지혜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수림, 양미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혜 이론들과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지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지혜는 인지적 요인, 통합적 요인, 관계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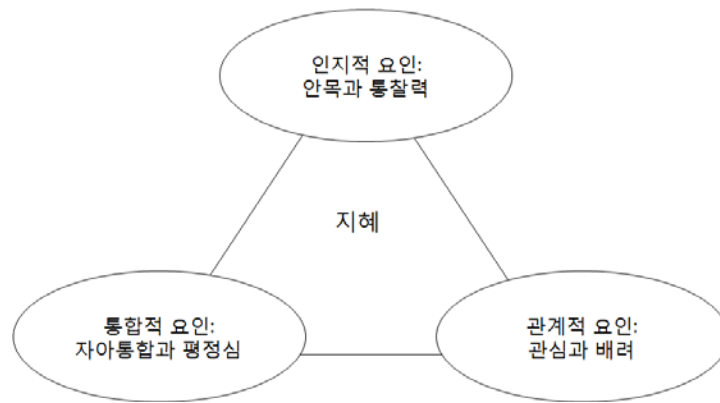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지혜 개념 모형도

인의 종합적 측면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그림 1). 지혜의 인지적 요인은 인생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인식과 통찰을 하고, 이에 대해 탁월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 요인은 자아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합하고, 정서적으로 평정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요인은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탁월한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내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과 애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지혜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지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우선, 지혜와 연령과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성격발달을 연구한 종단 연구에서는 지혜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Helson & Srivastava, 2002; Wink & Helson, 1997). 그들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중년기까지의 성격발달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지혜의 연령 관련 변화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 노인과 젊은이를 피험자로 하여 지혜 수행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과 젊은이 간의 유의미한 지혜 수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Ardelt, 2003; Baltes, Staudinger, Maercker, & Smith, 1995; Smith, Staudinger, & Baltes, 1994;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Staudinger(1999)는 연령에 따라 지혜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성숙의 측면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혜를 감소시키는 성격적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연령과 지혜의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성별과 지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비일관적이었다. 지혜는 성별과 관련성이 없었거나(Ardelt, 2003), 여성과 유의미한 관련성(Webster, 2003)이 있었다. Ardelt(2009) 연구 결과, 지혜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인은 노인집단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요인은 대학생 및 노인집단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게 나타나 하위요인별로 성차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교육기간은 Ardelt(2003)의 연구에서 지혜와 약한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지혜의 인지적 요인과 주로 관련되었고, 지혜 개념에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Webster(2003)의 척도는 교육기간과 관련성이 없었다. 본 지혜 척도 역시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요인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본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셋째, 그동안의 지혜 연구들은 지혜가 삶의 만족과 의미 등 긍정적 구성개념들과 관련성을 나타내어 지혜가 성인기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혜는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Ardelt, 1997, 2003, 2005; Hartman, 2000). Ardelt(1997)의 연구에서 중·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신체적 건강, 사회경제적 위치, 재정상황, 물리적 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 조건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Hartman(2000)의 연구에서, 지혜는 중년여성이 갱년기 증상에 잘 대처하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혜는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타인을 돕거나 갈등상황에서 긍정적 문제 해결을 한다. Kunzmann과 Baltes(2003)의 연구에서, 지혜는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협동적 갈등해결 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지배적·회피적 전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지혜는 동료, 사회, 환경 등과 같은 타인에 대한 가치 확장 및 자기실현과 통찰과 같은 자아 가치 확장과 상관을 보였고, 쾌락적 삶에 대한 가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Kinnier와 Tribbensee, Rose, Vaughan(2001)은 삶의 위기상황을 겪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노인들은 타인들을 돌보는 태도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발견하였다. 또한,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도 지혜와 함께 이타주의 및 사회적 기여

가 공통요인으로 조사되었다(Kinnier, Kernes, Tribbensee, & Puymboreck, 2003). 그리고 지혜는 신경증 및 소외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Ardelt, 2003; Levenson et al, 2003). 또한, Curnow(1999)는 지혜의 한 요인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한 바 있고 Levenson과 Aldwin, Cupertino(2001)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지혜의 관련 요소로 동의한 바 있다. 김은희(2008)에 따르면, 집착은 “현재성, 유연성, 그리고 초연성이 결여된 심리상태”로써 고정되고 경직되어 있는 사고와 심리상태를 일컫는데 이러한 집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윤호균, 2005). 집착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예, 김은희, 2008) 집착은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 변인들과 부적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구성개념 정의를 볼 때, 지혜는 집착과 부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혜 척도가 타당하다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혜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나타내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지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구성개념들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대인관계 만족, 신경증, 집착, 소외)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척도가 기존의 지혜 척도와 얼마나 변별되는지 확인하고자 자아초월 척도(ASTI)와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두 개의 척도가 모두 지혜를 측정하고 있으나 자아초월 척도는 자아초월이라는 한 개의 요인으로 지혜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의 척도는 인지, 통합, 관계의 세 가지 측면의 지혜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척도 간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변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1: 지혜 척도의 요인분석

(표준편차, 10.13)이었다.

연구 1에서는 지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문항들을 수집 및 구성하고, 대학생 및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정 문항을 선정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직장인, 교사, 공무원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10여개 대학 및 회사, 학교, 자체모임 등에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전체 수거된 1,145부의 설문지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대학생 및 일반성인 집단별로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참여자들은 총 573명(대학생 329명, 일반인 244명)이었으며, 이 중 반복문항에 대한 불일치 점수를 3차 이상 보인 6명의 자료를 제외한 5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7.52세(표준편차, 9.38), 성별은 남자 268명(47.3%), 여자 299명(52.7%)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총 572명으로 대학생 332명(58.05%), 일반인 240명(41.96%)이었으며 전체 설문지 중 동일 반복문항에 3점 이상 불일치한 설문지 6개를 제거한 566명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다. 성별분포는 남자 201명(35.54%), 여자 365명(64.46%)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7.84세

절차: 예비문항 선정 및 번안과정

본 연구에서는 이론가들의 다양한 지혜 개념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혜 척도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집하였다. 또한, 추후 한국인의 지혜와 다른 문화에서의 지혜 간의 비교 연구를 염두 해 두고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집하였다. 1차 예비척도 문항 선정에서는 지혜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개발된 여러 척도들을 모두 검토하여, 본 연구의 지혜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자기보고검사가 가능한 척도들을 모두 수집하였고, 그 중 원저자가 척도의 번안과 사용에 동의한 척도들을 포함시켰다. 수집된 지혜 척도로는 Ardel(2003)의 지혜 척도(Three Dimensional Wisdom Scale), Webster(2003)의 자기평가 지혜 척도(The self-assessed wisdom scale), 베를린 지혜 도식(Baltes & Smith, 1990)을 근거로 한 Kwon(1995)의 지혜관련 지식의 5차원 척도(Scales for the Five Dimensions of Wisdom-Related Knowledge), Levenson 등(2005)의 성인용 자기초월 척도(The Adult Self-transcendence Inventory)와 Yang(2000)의 지혜 척도(The Four Wisdom Scale)가 있었다. 이 척도들의 문항들을 번안하여 총 5개척도의 106문항을 1차 선정하였다.

질문지 번안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본 연구자가 일차번안을 하고, 번역가로 활동 중인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학생이 함께 검토하여 일차 수정을 하였다. 이렇게 번안된 질문지를 미국에서 상담심리학 석·박사과정을 마친 상담심리학자가 문항을 수정하여 이차번안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질

문지의 원 문항과 변안된 문항을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문항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최종 점검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문항을 손질하여 번안을 완료하였다.

1차 예비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정을 받았다. 평정자 집단으로는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이상의 전문가 5명을 선정하였다. 5명의 평정자들에게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지혜개념과 각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지혜개념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지와 문항내용이 적절한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5명의 전문가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에서 ‘매우 적절하다’까지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문항들의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 대안적 문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평정결과, 각 문항별로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에 표시한 56개의 문항들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지혜 척도(예비척도)

예비문항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56문항의 지혜 예비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방법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SPSS15.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스크리 검사(scree test)를 실

시하였다. 총 56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요인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31명의 자료였다. 지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AMOS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566명의 자료 중 1문항이라도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47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AMOS의 여러 적합도 지수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절대적합지수(G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적합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혜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15.0을 사용하여 지혜와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지혜 척도에 대해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스크리도표상 5요인으로 판단되어 5요인을 지정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들을 삭제하고 두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을 .30이상 갖는 문항의 경우는 부하량이 큰 쪽으로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나온 문항들 중 문항의 수와 내용을 고려하여 .35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36문항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 5요인은 전체 분산의 31.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문항별 요인부하량, 고유치, 설명분산, 문항-총점간 상관 및 신뢰도 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지혜의 각 요인들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14번 문

표 1. 지혜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총점간 상관(N=531)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문항-총점간 상관	Cronbach-alpha
안목과 통찰	18	.698					.55	.80
	44	.625					.58	
	8	.613					.51	
	53	.560					.53	
	31	.551					.49	
	26	.541					.48	
	47	.457					.38	
	55	.446					.46	
	38	.443					.42	
	23	.395					.39	
정서조절	15		.519				.43	.68
	22		.511				.39	
	9		.510				.38	
	33		.458				.37	
	42		.453				.37	
	40		.450				.39	
	21		.382				.36	
	12		.355				.30	
조망수용	45			.688			.60	.76
	37			.650			.58	
	46			.639			.57	
	30			.544			.45	
	41			.370			.41	
경험의 통합	43				.626		.51	.74
	27				.549		.47	
	5				.529		.53	
	24				.467		.36	
	17				.437		.38	
	19		.388		.422		.47	
	36				.414		.44	
관심과포용	39					.627	.45	.65
	49					.612	.41	
	56					.563	.42	
	50					.462	.40	
	14					.382	.28	
	51					.363	.34	
고유치		6.296	2.458	2.136	1.914	1.838		
설명분산		15.663%	4.959%	4.068%	3.562%	3.149%		
누적분산		15.663%	20.622%	24.690%	28.252%	31.401%		

표 2. 지혜 척도의 최종 문항내용과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명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안목과 통찰	1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그의 인생목표가 삶의 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3.94	.68
	44.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수한 개인사항을 고려한다	3.73	.73
	8. 나는 인생 문제마다 어떤 특정 영역(예, 가정, 자신, 일)이 더 중요함을 이해하고 고려한다	3.84	.74
	53.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한다	3.87	.78
	3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3.78	.67
	26. 나는 조언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서 한다	3.71	.70
	47. 다른 사람의 삶의 과정은 그의 개인적 인생목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3.80	.79
	55. 나는 어떤 결정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내린 결정들을 다시 검토해본다	3.63	.78
	38.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상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3.65	.81
정서조절	2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강점과 약점들을 파악한다.	3.57	.79
	15. 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내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3.36	.78
	22. 이제 나는 진심으로 인생의 아이러니(모순)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3.07	.82
	9. 나는 종종 유머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곤 한다	3.44	.90
	33. 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겪는 상황에서도 익살(유머)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한다	3.44	.87
	42. 예전에 비해, 나는 내 실수들을 쉽게 웃어넘길 수 있다	3.22	.84
	40. 나는 자제를 잃지 않고 내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3.07	.85
	21.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내 감정을 조절한다	3.16	.84
조망수용	12. 나는 나와 견해가 많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2.64	.94
	45. 나는 항상 문제의 모든 측면들을 보려고 애쓴다	3.55	.84
	37.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잠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3.40	.87
	46.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3.49	.83
	30. 나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모든 반대 의견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3.43	.84
경험의 통합	41. 어떤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나는 우선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3.40	.77
	43. 나의 삶에는 많은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다	3.41	.86
	27. 나는 많은 중요한 인생결정을 해야만 했다	3.48	.86
	5. 나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3.53	.75
	24. 나는 내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가 존재함을 종종 느낀다	3.53	.83
	17.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이겨냈다	3.37	.81
	19. 내 과거의 기억들이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3.30	.81
	36. 내 과거를 돌이켜보는 일은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3.50	.82
관심과 포용	39. 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상황(누구, 이유 등)에 관계없이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3.12	.90
	49.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3.12	.87
	5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	3.71	.85
	50.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만하고 가주기를 바라게 된다	2.91	.93
	14.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것이 내 일처럼 여겨진다	3.34	.92
	51. 누가 내 말에 토를 달면 쉽게 감정이 상한다.	3.17	.94

항(.28)을 제외하고는 .3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14번 문항의 경우 문항-총점간 상관 .28도 받아들여질 만한 상관계수이며, 문항 제거 시 요인의 신뢰도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지혜의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지수(α)는 .65-.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혜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의 5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내용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들의 명칭은 연구자가 먼저 작성하고,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확정하였다. 요인 1은 삶에서의 문제, 대인관계, 인생문제에 대한 조언 등 인생에 대한 안목과 지식, 통찰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안목과 통찰’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문항들을 보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긍정적 정서로 전환하고, 유머를 사용하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문항들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 관점을 취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 ‘조망수용’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의 문항들은 과거 인생 경험을 통해 현재 삶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경험의 통합’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의 문항들은 타인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부정적인 부분까지 포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관심과 포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지혜 척도의 각 요인들 간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지혜 척도의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요인들은 대체로 .3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관심과 포용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12 ~.19 정도의 다소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지혜 척도의 각 요인은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요인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chi^2(584, 455) = 1349.05$, GFI .851, TLI .798, CFI .813, RMSEA .054로 나타났다. GFI는 .85이상, RMSEA는 .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으나 상대적 적합도는 .90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 적합도가 수정지수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홍세희(2006)에 따르면, 두 측정변수가

표 3. 지혜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 (N=531)

	지혜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경험의 통합
지혜	-				
안목과 통찰	.73***	-			
정서조절	.69***	.31***	-		
조망수용	.67***	.39***	.34***	-	
경험의 통합	.68***	.39***	.35***	.35***	-
관심과 포용	.48***	.16***	.19***	.19***	.12***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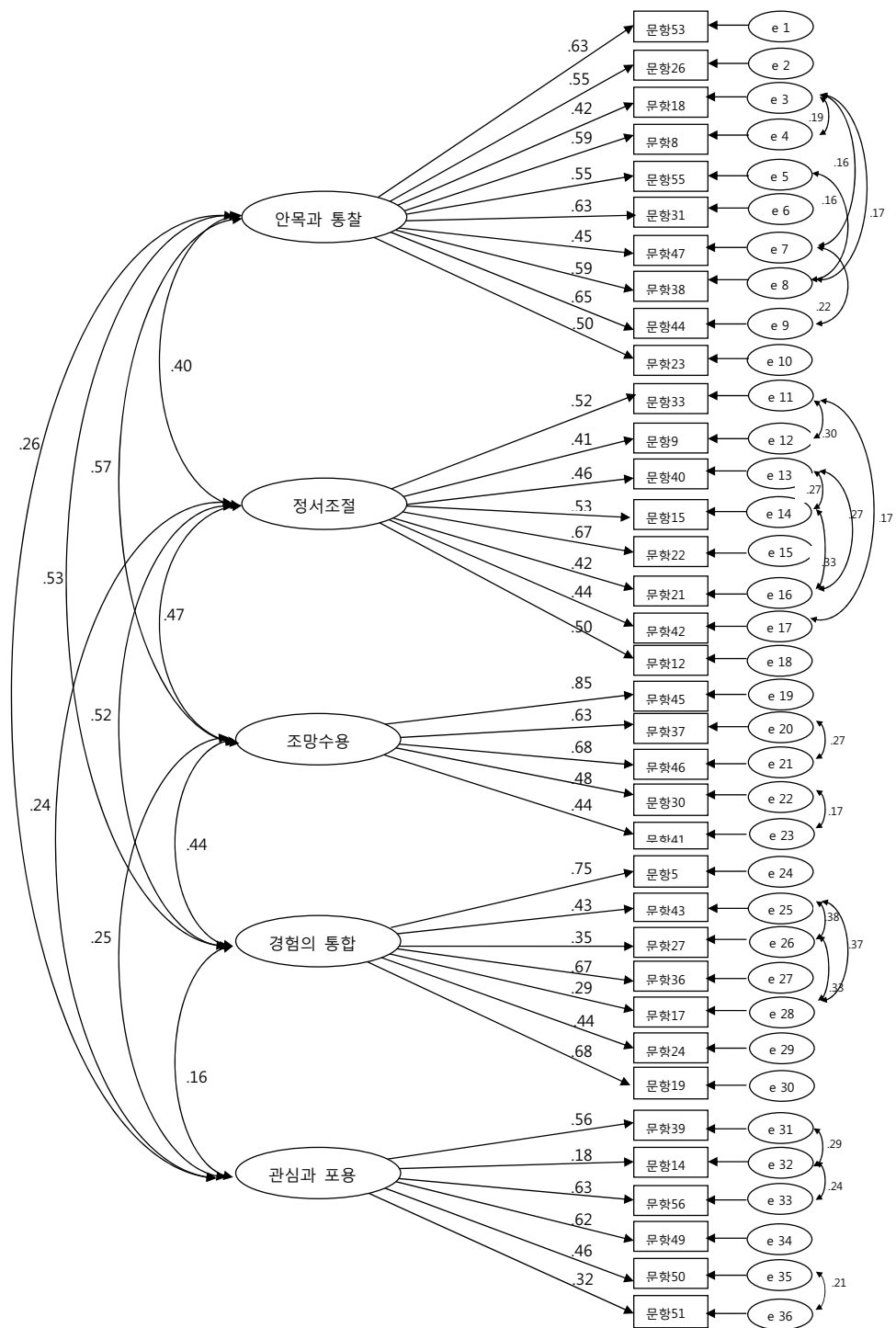


그림 2. 지혜척도의 5요인모형(표준화계수)

유사하거나, 부정문 등 문항의 진술방식이 유사한 경우, 수정지수를 통해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병렬(2000)은 수정지수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이상 보수적으로 10이상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10을 기준으로 요인분석 결과에서 제시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하여, 단일 요인하의 유사한 문항들에 대해 미지수를 추정하였다.

측정변수 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 추정치는 안목과 통찰 요인에서 문항8-문항18, 문항55-문항38, 문항18-문항38, 문항18-문항47, 문항47-문항44이었고, 정서조절 요인에서 문항33-문항9, 문항40-문항21, 문항40-문항15, 문항15-문항21, 문항33-문항42, 조망수용 요인에서 문항37-문항46, 문항30-문항41, 경험의 통합 요인에서는 문항43-문항27-문항17, 관심과 포용 요인에서 문항14-문항39, 문항14-문항56, 문항50-문항51이었다. 추정된 문항들은 측정하는 내용이 유사하였으며, 문항50-문항51은 역문항으로 측정방식이 같았다. 추정치를 사용한 문항들끼리의 상관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계수($r = .30 \sim .64$, $p < .001$)를 나타내었다. 수정지수 사용 이후 최종 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GFI와 RMSEA를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TLI와 CFI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χ^2 의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χ^2 값이 클수록 적합도가 나빠 모형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며, χ^2/df 값은 5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

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이 기각된다하더라도 다른 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기준으로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지혜 척도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GFI가 .904, TLI가 .900, CFI가 .912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RMSEA는 .037로 좋은 간명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2: 지혜 척도의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지혜 척도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혜 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한 수렴타당도 및 기존 초월 척도와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및 일반 성인 전체 참여자 1,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 658명(58.1%), 일반인 475명(41.9%)이었고, 성별은 남자 469명(41.4%), 여자 664명(58.6%), 평균 나이는 27.68세(표준편차, 9.76)이었다.

측정도구

지혜 척도

연구1을 통해 개발된 36문항의 지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α 는 .85 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

주관적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하고 김완석, 김영진(1997)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신뢰도 계수 α 는 .86이었다.

삶의 의미 척도

Steger, Frazier, Oishi,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존재, 의미추구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안시 신뢰도계수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0문항 중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높은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78이었다.

긍정적 대인관계 척도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의 하위요인 긍정적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7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80이었다.

신경증 척도

직업 선호도 검사(산업인력관리공단, 2001)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안정성 척도는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증을 측정하는 검사로 총 3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대표문항 1개씩 총 6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82이었다.

집착 척도

김은희(2006)가 개발한 척도로써 한 개인이 나타내는 집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과거중심성, 현재결여성, 미래중심성, 시각고정성, 상황경직성, 욕구집착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당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당 대표문항 1문항씩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68이었다.

자아초월 척도(ASTI)

Levenson 등 (2005)이 개발한 초월적 지혜 및 소외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자아초월 10문항, 소외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아초월 .67, 소외 .72 이었다.

결 과

수렴 및 변별타당도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지혜는 나이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에서 조망수용 요인은 나이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혜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요인이 성별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남성과 정서조절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4. 지혜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타당도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구분	척도	$M^{1)}$	SD	지혜	안목과 통찰	정서 조절	조망 수용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
인구 통계	연령	27.68	9.76	.05	.05	-.04	.12***	.00	-.00
	성별 ²⁾	.59	.49	-.02	.02	-.10**	-.04	.01	.04
	교육기간(년)	15.14	1.97	.08**	.09**	-.02	.13***	.06	.01
수렴	삶의 만족	3.10	0.68	.34***	.19***	.35***	.21***	.19***	.16***
	삶의 의미	3.75	0.70	.51***	.36***	.36***	.31***	.45***	.20***
	관계만족	3.65	0.74	.40***	.31***	.31***	.15***	.18***	.38***
	소외	2.60	0.65	-.36***	-.24***	-.31***	-.14***	-.14***	-.35***
	집착	2.89	0.64	-.33***	-.13***	-.34***	-.15***	-.02	-.43***
	신경증	2.89	0.73	-.33***	-.16***	-.35***	-.16***	.01	-.41***
변별	자아초월	26.21	2.69	.45***	.34***	.38***	.31***	.27***	.18***

주. N=1,059. 1) 각 척도 문항들의 평균(표준편차)임. 2) 남성=0,여성=1

** $p < .01$, *** $p < .001$

지혜는 교육기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하위요인 중 안목과 통찰 및 조망수용 요인이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의 영향이다.

수렴타당도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혜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관계만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소외, 집착, 신경증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지혜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이 삶의 만족, 삶의 의미, 관계만족과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소외, 집착, 신경증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단, 경험의 통합 요인은 집착, 신경증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지혜 척도와 각 하위요인들은 지혜와 관련된 준거척도들과 적절한 상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

발된 지혜 척도 중 자아초월 척도(Levenson et al, 2005)의 자아초월 요인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지혜 척도는 ASTI와 .45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20%의 분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관심과 배려가 .18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조절이 .38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3% ~ 14%의 설명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지혜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 관련성을 나타내면서도 잘 변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발달의 궁극적 목표

인 ‘지혜’ 개념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지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통합적, 관계적 요인을 토대로 한 지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판 지혜 척도를 개발하여 그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여 지혜척도를 타당화하였다. 먼저 106개의 문항들을 수집하였고,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56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예비 척도를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실시하고, 56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확인하여 36개의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피험자 집단 56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지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 및 자아초월 척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판 지혜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혜 척도의 하위요인은 5개로 나타났는데,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이다. 이 다섯 개의 하위요인들은 본 연구의 지혜 개념화에 비추어 보면, 인지적 요인은 높은 안목과 통찰과 판단력을 일컬으며 ‘안목과 통찰’, ‘조망수용’ 요인을 포함한다. 통합적 요인은 자아자각과 내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정서조절’ 요인은 정서를 통합, 평정하는 것, ‘경험의 통합’ 요인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를 통합하는 것으로 두 요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요인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관심과 포용’ 요인을 포함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혜 개념화에 걸맞은 척도 요인들이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지혜 척도는 이전에 개발된 지혜 척도들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들이 있다. 본 척도의 다섯 개 요인들은 지혜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지혜의 다차원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 및 동양의 지혜 개념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Ardelt, 2003, Clayton & Birren, 1980, Takahashi, 2000, Yang, 2000). 하위요인별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요인인 ‘안목과 통찰’은 인생과 관련된 문제나 지식에 대한 안목이나 삶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통찰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지혜의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이는 Ardel(2003) 지혜 척도의 인지적 차원, Wink와 Helson(2000)의 실용적 지혜, Baltes와 Staudinger(2000)의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개념적 도식과 연결된다. 다만에서 지혜에 대하여 연구한 Yang(2000)의 결과에서도 ‘유능성과 지식’이 지혜의 제1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김민희(2008)의 지혜 척도에는 ‘인지적 역량’요인이, ‘한국노인의 지혜 척도’(성기월 등, 2010)에서도 ‘자기성찰’ 요인이 나타난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개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정서조절’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잘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유머를 사용하는 등 정서적 통합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요인은 Ardel(2003) 척도의 정서적 차원, Webster(2003)의 ‘정서’, ‘유머’ 요인들과 관련된다. ‘조망수용’ 요인은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 인지적 요인과 관련되며, 이는 Ardel(2003)의 반성적 차원,

Baltes와 Staudinger(2000)의 지혜 개념과 관련된다. ‘경험의 통합’ 요인은 자신의 인생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고통스럽거나 다양한 경험을 극복하고 내적으로 통합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혜 개념 중 통합적 요인의 한 부분이다. 이는 Webster(2003)의 ‘경험’ 요인과 관련되며, 성기월 등(2010)의 ‘인생극복 경험’ 요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관심과 포용’ 요인은 타인에 대해 관심이 있고 배려하며, 돕고자 하며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Ardel(2003)의 정서적 차원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민희(2008)의 ‘공감적 대인관계’와 성기월 등(2010)의 ‘공감적 정서’ 요인과 상통하는 내용이 있다.

셋째, 본 척도와 서양에서 개발된 기존 척도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본 척도는 다차원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실용적 지혜를 측정하는 Baltes와 Staudinger (2000)의 지혜 척도와 초월적 지혜 척도인 Levenson의 자아초월 척도와 구별되었다. Levenson의 초월 척도에 정의하는 지혜는 내면성과 영성이 증가하고 우주와의 교감 증가를 나타내어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본 척도의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경험의 통합’ 요인등과 거리감이 있다. 또한 Ardel(2003)의 척도와 유사하면서도 하위요인들에서 개념 및 문항들의 차이점이 있다. Ardel(2003) 척도의 인지적 차원은 지적인 탐구심, 반성적 차원이 조망 능력을 측정하는 반면, ‘안목과 통찰’ 및 ‘조망수용’은 삶에 대한 통찰과 다양한 관점 등 보다 폭넓은 인지적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Ardel(2003)의 정서적 차원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의 ‘정서조절’과 ‘경험의 통합’이 개인의 정서적 평

정과 삶의 통합을 측정하고 있다. 본 척도에서는 관계적 요인으로써 ‘관심과 배려’는 대인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정서와 태도가 중심내용으로 나타났으나 Ardel(2003) 척도는 관계적 차원을 갖고 있지 않다. Webster(2003) 척도와 차이점으로, 그는 지혜를 성격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인지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그의 척도에서는 개방성 및 유머가 지혜 요인으로 포함된 반면, 본 척도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살펴보면, 성기월 등(2010)의 척도는 이론적 개념화를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지혜 개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문항을 구성하였다는데 접근의 차이가 있다. 또한, 두 척도의 가장 큰 차별성은 적용 대상으로 성기월 등(2010)의 척도는 노인 대상이며, 본 척도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혜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본 척도에서는 ‘정서조절’이 정서적인 자아통합을 의미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성기월 등(2010)의 척도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통합을 나타내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희(2008)의 척도와 개념 및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녀의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이 있는 반면, 본 척도에서는 삶과 관련해서 ‘경험의 통합’이 나타났다. 또한 ‘절제와 균형’ 요인은 본 척도의 ‘정서조절’과 유사해 보이나, 문항 내용에 있어서 ‘정서조절’은 자신의 내면의 평정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절제와 균형’ 요인은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본 척도의 특징은 ‘정서조절’과 ‘경험의 통합’이 통합적 요인과 관련되어, 자신의 정서를 통합하고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본 척도의 지혜 하위 요인들과 국내에서 개발된 지혜 척도들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공통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척도의 ‘안목과 통찰’과 ‘조망수용’은 인지적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김민희(2008)의 ‘인지적 역량’, 성기월 등(2010)의 ‘자기성찰’이 인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들도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지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탁월성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 요인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중요요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지혜의 공통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척도의 ‘관심과 배려’와 김민희(2008)의 ‘공감적 대인관계’, 성기월 등(2010)의 ‘공감적 정서’는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미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에게 지혜란 타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강조하는 관계중심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척도들에서는 관계적 요인이 지혜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지혜 특성으로 여겨지며, 지혜의 관계적 요인이 한국인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계적 요인과 같은 한국인의 지혜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 동서양 문화 간 지혜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관계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관계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신경증 및 집착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혜는 삶의 만족과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Ardelt, 1997; Hartman, 2000; Kunzmann & Baltes, 2003). 또한 본 연구에서 지혜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 관계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 서처럼 지혜가 삶의 행복관련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지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험의 통합’ 요인만이 집착 및 신경증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의 통합’ 개별 문항들과 집착, 신경증과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나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와 ‘내 과거의 기억들이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는 집착 및 신경증과 부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나는 내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가 존재함을 종종 느낀다’ 문항이 집착, 신경증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문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의미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예민함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문항수정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추정 가능한 이유로는 ‘경험의 통합’ 요인은 힘든 경험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통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이 겪은 힘든 경험의 수준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실제 역경의 극복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착과 신경증과의 상관이 대상자들에 따라 일

관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 역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통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착, 신경증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외상 후 성장 척도(송승훈, 이홍석, 김교현, 2009)와 같은 관련 척도들을 같이 실시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확실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곱째, 본 지혜 척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교육기관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는 조망수용과 안목과 통찰의 두 하위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Ardel(2003) 연구 결과에서 인지적 요인만이 교육기간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혜는 연령과 성별과는 특정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아, 생물학적 나이나 성차보다 다른 요인들이 지혜와 관련된다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혜 척도의 요인구조의 안정성 및 수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과 개발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개념화에 적절한 많은 문항들이 포함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개념화를 잘 설명하는 문항들을 개발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척도의 설명변량은 31.40%로 다소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 척도는 30%대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며(강은영, 이영호, 2006; 권선중, 김교현, 2007; 이동귀, 이수란, 박현주, 2008), 이에 대한 설명으로 척도의 전체 변량이 다른 개인차와 관련된 특정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적은 공통분산이 추출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다 (Floyd & Widaman, 1995). 본 연구에서는 낮은

설명변량에 대해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동귀, 이수란, 박현주, 2008)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변량과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추후 요인의 내용과 구조를 더 탐색하고, 각 요인에 맞는 추가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에서 60대까지였으나, 대부분이 20-40대였으며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적었다. 비록 척도 문항의 내용들이 연령에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노인집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아초월 척도를 사용하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국내의 지혜 척도들과 다양한 관련 구성개념들과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개발된 지혜 척도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한국인의 공통된 지혜 요인에 대해서 검증하고 해외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지혜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기보고 형식의 지혜 척도는 긍정 응답 편향성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자기보고식의 지혜 척도와 더불어 관찰자 보고나 평정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지혜 척도를 같이 실시하여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국내에서 인지적, 통합적, 관계적 요인의 지혜 개념 모형에 따라 지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들이 있으나 본 척도와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었으며, 본 척도의 개발

로 인하여 지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 척도들에서 추출된 한국인 지혜의 공통 요인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지혜 연구와 문화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지혜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지혜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97-415.
- 권선중, 김교헌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 (K-MA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269-287.
- 김민희 (2008). 한국인의 지혜 개념 탐색과 중노년기 삶에서 지혜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희, 민경환 (2010). 지혜의 연령차와 중노년기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한국노년학회지, 30(3), 947-97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 - 39.
-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1.
- 김은희 (2006). 개정판 집착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희 (2008). 집착의 잠재계층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53-771.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1995). 불교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 281-299.
- 법륜스님 (1996). 반야심경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 성기월, 이신영, 박종한 (2010). ‘한국노인의 지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30(1), 65-80.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헌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0(2), 211-225.
- 윤호균 (2005). 심리상담의 치료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13.
- 이동귀, 이수란, 박현주 (2008). 한국판 자기평가 소재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65-82.
- 이수림, 양미진 (2009). 질적 분석을 통한 상담과정 중 내담자 지혜 발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791-813.
- 이수림, 조성호 (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65-87.
- 조공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3.
- 주용국 (2011). 전문직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30, 75-96.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1). 직업선호도검사 타당화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6).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와 적용.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실 동계 워크숍 교재.
- Ardelt, M.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1), 15-27.
- Ardelt, M.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4), 360-336.
- Ardelt, M. (2003). Development and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delt, M. (2005). How wise people cope with crises and obstacles in life. *Revision*, 28(1), 7-19
- Ardelt, M. (2009). How similar are wise men and women? A comparison across two age cohort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1), 9-26.
- Ardelt, M. (2011). Are older adults wiser than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two age cohor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4), 193-207.
- Arlin, P. K. (1990). Wisdom: The art of problem finding.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30-243).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Smith, J.(1990). Towards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87-1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1), 122-136.
- Baltes, P. B., Staudinger, U. M., Maercker, A., & Smith, J. (1995). People nominated as wise: A comparative study of wisdom-related knowledge. *Psychology and Aging*, 10, 155-166.
- Birren, J. E., & Svensson, C. M. (2005). Wisdom in history. In R. J. Sternberg & J. Jordan (Ed.), *A handbook of wis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uck, S., & Glück, J. (2004). Making things better and learning a lesson: Experiencing wisdo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72, 543-572.
- Clayton, V.(1982). Wisdom and intelligence: The nature and function of knowledge in the later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15, 315-23.
- Clayton, V.,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103-135). New York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urnow, T. (1999). *Wisdom, intuition, and ethics*. Aldershot, UK: Ashgate Publishing.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lood, M. (2002).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 Testing*, 6, 105-108.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Glück, J., & Bluck, S. (2011). Laypeople's conceptions of wisdom and its development: Cognitive and integrative view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B(3), 321-324.
- Hartman, P. S. (2000). *Women developing wisdom: antecedents and correlates in a longitudinal sample*. University of Michig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Helson, R., & Srivastava, S. (2002). Creative and wise peopl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how they develop.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430-1440.
- Jennings, P. A. (2004). *The role of personality, stress, and coping in the development of wisdo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ekes, J. (1983).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0, 277-286.
- Kitchener, K. S., & Brenner, H. G. (1990). Wisdom and reflective judgement: Knowing in the face of uncertainty.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12-229).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won, Yoo-Kyung. (1995). *Wisdom in Korean families: its development, correlates, and consequences for life adaptation*. Cornel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unzmann, U., & Baltes, P. B. (2003). Wisdom-related knowledge: Affective, motiv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04-1119
- Le, T. N. (2004). *A cross-cultural of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Le, T. N. (2008). Cultural values, life experiences, and wisdo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 259-281.
- Levenson, M. R., Aldwin, C. M., & Cupertino, A. P. (2001). *Transcending the self: Towards a liberative model of adult development*. In A. L. Neri (Ed.), *Maturidade & Velhice: Umenfoquemultidisciplinar* (pp.99-115). SaoPaulo, BR: Papyrus.
- Levenson, M. R., Jennings, P. A., Aldwin, C. M., & Shiraishi, R. W. (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2), 127-143.
- Levitt, H. M. (1999). The development of wisdom: An analysis of Tibetan Buddhist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2), 86-105.

- Levitt, H. M., Frankel, Z., Hiestand, K., Ware, K., Bretz, K., Kelly, R., McGhee, S., Nordtvedt, R. T., Raina, K. (2003). The Transformational experience of insight: A life-changing ev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7, 1-26.
- McKee, P., & Barber, C. (1999). On defining wisd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2), 149-164.
- Montgomery, A., Barber, C., & McKee, P. (2002). A phenomenological study of wisdom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2), 139-157.
- No, Ann-Young. (1993). *Wisdom as defined and perceived by counseling psychologists*. University of Kentuck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Pasupathi, M., Staudinger, U. M., & Baltes, P. B. (2001). Seeds of wisdom: adolescents' knowledge and judgement about difficult life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51-36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mith, J., & Baltes, P. B. (1990). Wisdom-related knowledge: Age/cohort differences in response to life-plann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94-505.
- Smith, J.,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4). Occupational settings facilitating wisdom-related knowledge: The sample case of clinical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989-999.
-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6). Interactive minds: A facilitative setting for wisdom relate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46-762.
- Staudinger, U. M., Lopez, D. F., & Baltes, P. B. (1997). The psychometric location of wisdom-related performance: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mor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1), 1200-1214.
- Staudinger, U. M., Maciel A. G., Smith, J., & Baltes, P. B. (1998). What predicts wisdom-related performance? A first Look at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facilitative experiential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1-17.
- Staudinger, U. M., Smith, J., & Baltes, P. B. (1992). Wisdom-related knowledge in a life review task : Age difference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Psychology and Aging*, 7(2), 271-281.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4), 347-365.
- Takahashi, M. (2000). Toward a culturally inclusive understanding of wisdom: Historical roots in the East and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3), 217-230.
- Takahashi, M., & Bordia, P. (2000). The concept of wisdom: A cross-cultural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1-9.
- Takahashi, M., & Overton, W. F. (2002). Wisdom: A culturally inclus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 Development*, 26(3), 269-277.
- Taylor, M., Bates, G., & Webster, J. D. (2011). Compar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measures of wisdom: Predicting forgiv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the Self-Assessed Wisdom Scale (SAWS) and the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3D-W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37(2), 129-141.
- Webster, D. (2003). An exploratory analysis of a self-assessed wisdom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1), 13-22.
- Wink, P., & Helson, R.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1), 1-15.
- Yang, Shih-ying. (2000).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University of Y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논문투고일 : 2012. 12. 7.
1차심사일 : 2012. 1. 2.
게재확정일 : 2012. 2. 20.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Korean Wisdom Scale

Sulim Lee

Open Cyber University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Wisdom Scal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cale. The Korean Wisdom Scale was developed and identified its validity by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e Korean Wisdom Scale consists of five factors, which are 'Outlook and Insight', 'Adjustment of Emotion', 'Perspective Taking', 'Integration of Experience', 'Concern and Comprehension'. Those five factors indicated the reasonable fit index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ddition, this scale identifi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such as satisfaction and meaning of life,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it indicated a negative rel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neurosis and clinging. Also, the scale was differentiated from Adult Self-transcendence Inventory.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is scale has a reliable criterion-related validity.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future studies.

Key words : wisdom, Korea, wisdom scale, adult development, development of scale